

2. 2012년 재정운영 방향

□ 재정여건

- 의존수입은 정부예산 증가로 일정수준 증가,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동계올림픽 유치영향 등으로 소폭 증가
 - 전반적인 세입규모는 3%내외 증가
 - 세출수요는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, 법정·의무적 경비, 동계관련 시설 등 국고보조 도비부담금, 기존사업 마무리 등으로 대폭 증가
 - 자체사업 가용재원 규모는 금년수준 상회
- ⇒ 내년도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긴축예산 편성운용

□ 예산편성 방향

- 인건비, 채무상환 및 법정경비 등 조직운영 필수수요는 전액반영
- 단계별 집중점검으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
 - 사전심사 강화로 효율성 낮은 사업 사전차단(투융자심사, 용역심의 등)
 - 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내부경비 줄이기, 불요불급사업 조정 등
- 공약사업·도정역점시책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투자
 - 경상경비 및 민간이전경비 동결, 행사·축제성 경비의 축소·통합운영
 - 추진중인 대규모사업 전면 재검토, 연부액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 재원조정
 - 민선5기 도정역점시책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한 투자사업에 재원배분
-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은 시군부담이 큰 환경기초시설과 장애인연금 등 일부사업 20% ⇒ 30%로 상향조정 : 연차적으로 확대, 2008년수준 환원계획
- 지방채 발행규모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기틀마련
-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재정실무심사단 구성·운영 등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및 행정신뢰도 제고

□ 예산의 특징

▶ 강원도 최초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3조원시대 진입

- '11년도 2조 9,180억원보다 1,190억 원(4.1%) 증가 : 3조 370억 원
※ 1조원 시대 진입 : '01년도 / 1조 1,363억 원(11년 소요)
- 의존수입은 정부예산 증가로 전년보다 658억 원(3.0%) 증가
- 지방세는 동계올림픽유치·경춘선 개통 등으로 미약하나마 상승 전화

▶ 공약사업 및 도정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투자

- 단계별 집중점검으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
 - 사전심사, 예산편성, 사후관리단계로 구분, 철저한 검증 및 관리강화
- 예산편성과정에서 효율성 증대방안 적극 실천
 - 총액경비, 사회단체보조금,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경비 전년수준 동결
 - 업무추진비 절감편성 및 행사성경비 등 축소 또는 폐지 적극 추진
 - 도의 예산지원대상 기관, 단체, 법인 등도 예산효율화 적극 동참유도
- 공약사업·올림픽기반구축·도정역점시책 등 선택과 집중투자
 -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대단위투자사업 투자규모 및 투자시기 조정
 - 생활형일자리창출, 취약계층 복지확대, 전통시장 활성화, 농어민 소득증대 등 서민생활안정 도모에 지속투자
 -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구축에 필요한 동계관련 시설 등 우선투자, 올림픽경기장 및 경기장 접근로 설계비, 올림픽 푸드존 조성사업 등
 - 교육2배, 복지2배, 일자리2배 달성을 민선5기 공약사업 및 도정역점시책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에 재원배분

▶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대책 강력 추진

- 총사업비 관리, 재정운용실무심사단, 예산낭비 발굴·제안 T/F팀,
- 예산일몰제도 운영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
-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은 일부사업 상향조정, 연차적으로 확대
- 2년 연속 지방채발행규모 역대 최저수준 유지('11년 500억 원)
⇒ 조기상환 등을 통해 매년 지방채 300억 원 감축, '15까지 5천억 원 이하 유지